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4월 21일(월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3월중 경기선행지수 전문가 예상치 상회
- 2) 금융권, 내부자거래 판결 주시
- 3) 수출입은행 존폐 논란, 기업들 노심초사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BOJ, 공격적 자산매입에 단기 자금시장 흔들
- 2) 일본 무역수지 21개월 연속 적자
- 3) 글로벌 펀드업계 '스마트 베타펀드' 주목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월가 전문가들, 애플이 자사주 매입 규모 늘릴 것으로 전망
- 2)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, 금융업 진출 가속화

【미국 경제 동향】

1) 3월중 경기선행지수 전문가 예상치 상회

- 지난 21일(현지시간)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대비 0.8% 상승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전망치 0.7%상승과 직전월(2월) 기록인 0.5%를 각각 상회하는 결과
- 전문가들은 한파에서 벗어나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향후 경기가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
- 한편, 동기간 동행지수와 후행지수 각각 0.2%, 0.6% 증가

2) 금융권, 내부자거래 판결 주시

- 지난 20일(현지시간) WSJ은 금융업계가 이번 주 연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인 내부자거래 관련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
 -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미국 델 컴퓨터의 6천 2백만 달러규모 내부자거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미국 검찰은 ‘레벨 글로벌 인베스터스’ 공동설립자인 치아슨과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뉴먼이 델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빼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한 바 있음
- 전문가들은 이번 케이스가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것인 만큼 금융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최근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

3) 수출입은행 존폐 논란, 기업들 노심초사

- 지난 20일(현지시간) FT는 수출입은행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
 - 오는 9월 말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수출입은행의 재인가 건과 관련, 의회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
- 전문가들은 수출입은행이 일부 대기업에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자유시장 원리에 기대 납세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
- 반면, 일부에서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주장
 - 전미제조업자협회(NAM)는 해외 고객들은 종종 제품 인수전에 결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
 - 아울러 최근 미국항공사들은 성명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이 부족해 미국 항공기를 사들이는 해외 항공사들에 비해 불리하다며 수출입은행이 미국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정해줄 것을 미의회에 요청한 바 있음
- 한편,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재인가를 받는 데 성공, 대출 승인도 1천억 달러에서 1천 4백억 달러로 늘린 바 있음

【해외 경제 동향】

1) BOJ, 공격적 자산매입에 단기 자금시장 흔들

- 지난 21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중앙은행(BOJ)이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전례 없는 공격적 완화 기조를 유지해 단기 자금시장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도
 - 일본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시장인 콜마켓의 잔고가 지난 11일 기준, 14조 1천억 엔으로 BOJ가 양적완화를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
- 전문가들은 BOJ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약 7조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공격적 완화를 펼쳤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자금수요가 줄고 있다고 설명
 - 실제 무담보 초단기 대출의 기준 금리는 올 들어 평균 0.07%를 기록, 이는 10년 평균인 0.15%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
- 시장 전문가들은 BOJ가 4월 이뤄진 소비세율 인상의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, 이는 단기자금시장의 역할이 더 축소되는 것을 의미
- 한편 도쿄 채권시장에서는 최근 10년 만기 국채 신규 발행이 13년 4개월 만에 수요 부족으로 실패한 바 있음

2) 일본 무역수지 21개월 연속 적자

- 지난 21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3월 무역수지가 1조 4463억 엔으로 2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

- 지난달 무역적자 8025억엔, 지난해 3월 무역적자 3669억엔에 비해서도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
- o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하면서 적자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
-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.8% 증가한 6조 3836억엔을 기록,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월 1.1%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시장 전문가 예상 증가율 6.5%를 크게 하회

3) 글로벌 펀드업계 ‘스마트 베타펀드’ 주목

- o 지난 20일(현지시간) FT는 글로벌 펀드업계가 시장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‘스마트 베타(smart beta) 펀드’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
- 이는 스마트 베타 펀드가 주식형펀드의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의 장점만 취합,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거두는 데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
- o 시장조사업체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마트 베타 펀드 자산은 유럽에서 122억 유로로 6배 증가, 동기간 미국에서는 3150억 달러로 4배 증가
- 이 같은 추세는 올 들어서도 지속돼 스마트 베타 펀드 자산은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5.4%, 4.1% 증가한 바 있음
- o 반면 FT는 패시브 펀드 및 베타 펀드의 자산 확대속도는 날로 더더지고 있다고 지적

- 이 기간 패시브 펀드 및 베타 펀드의 자산 규모는 유럽 및 미국에서 각각 6,080억 유로와 3조 6천억 달러를 기록
- 절대적인 자산 규모로만 보면 스마트 베타 펀드보다 압도적으로 큰 수치이지만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현저히 더디다는 지적
- o 전문가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스마트 베타 전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었다며 이는 한시적 추세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돼 투자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
- 일례로 세계적인 연기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일본공적연금(GPIF)은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 일부를 스마트 베타 펀드로 옮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된 바 있음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월가 전문가들, 애플이 자사주 매입 규모 늘릴 것으로 전망

- o 지난 20일(현지시간) FT는 월가에서 애플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실시할 전망이라고 보도
- o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자사주 매입 규모를 300억 달러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
 - 아이폰 판매 부진과 아이폰6의 가을 출시를 염두한 소비자들의 구매 연기 등 2/4분기 매출이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
- o 애플은 앞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규모를 2015년 말까지 1천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월까지 이 약속의 절반 이상을 실행한 바 있음

2)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, 금융업 진출 가속화

- 지난 17일(현지시간) WSJ은 세계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유럽 데이터통신업체 유로넷의 자회사 리아머니트랜스퍼와 협력, 미국 한정으로 점포간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
- 이 서비스는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며 미국 내 4,000여개의 월마트 점포를 통해 최대 9백 달러까지 주고받을 수 있음
 - 송금 수수료는 50달러 이하는 4.5달러, 9백 달러 이하는 9.5달러로 경쟁업체 보다 절반가까이 저렴
- WSJ은 이를 두고 월마트 정식 은행은 아니지만 점차 은행 영역에 발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
 - 2012년 10월에는 아멕스 카드와 손잡고 월마트에서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서비스를 선보였고 현재는 수표 환금, 우편환, 세무대리업무까지 제공하는 중
- 아직 예금이나 대출업무를 보진 않지만 이용고객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만큼 서민 금융 서비스에 주력한다는 분석이 지배적
- 한편, 월마트는 이미 2007년 은행 자격 인수경매에 참여했으나 의회와 금융권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음.끝.